

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전 광주시당위원장 겸 광주시의회 의장이 17일 이수진 전 전국노동위원장 겸 광주지부장과 함께 당 지방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유일한 여당 최고위원이 된 것이다.

이 신임 최고위원은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한 호남 배려와 지방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임명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지난 추미에 당 대표 체제 하에서도 최고위원을 맡은 바 있어 11개월만에 같은 자리에 복귀한 셈이다. 그를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만나 소감과 각오 등을 들었다.



11개월만에 최고위원 복귀 호남 챙기고 자치분권 주력 ‘한전공대’, ‘한전이 주도해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광주시의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너무 조금하게 하지 말고 좀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면 당과 정부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전공대 영역안이 나왔는데,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용역 결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한전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대기업 이전의 의미가 되살린다면 한전이 광주전남혁신도시 최대 대기업의 위상에 맞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 사업도 지역의 현안이다.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광주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특별회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또 이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 상생의 노력이 관건이다. 민간공항을 무안공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광주시의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전남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당정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과 청와대는 수레의 양 바퀴 같은 존재다.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하는 분위기였다면 이해찬 대표 체제 하에서는 균형감 있는 당정관계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이 정책적 대안을 선전해 제시하고 청와대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당정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호남에서 민주당은 의석 수에서 아담에 밀리고 있다. 향후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성공하고 남북관계가 성공적으로 전개되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결과 11월께 광주시 권고”

공론화위원회 17일 출범식 모든 절차 공정·투명하게 진행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17일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선임된 위원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강희 변호사(법률), 홍기학 동신대 교수(조사통계), 김기태 호남대 교수·김은희 전남대 교수(소통), 김미경 조선대 교수·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갈등관리)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차례 이상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열어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문위원회, 소통위원회, 검증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다양한 위원을 참여하도록 해 공론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용역업체 선정, 여론조사 실시, 시민 홍보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2000~3000명의 모집단을 선정해 여론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집단의 숫자는 공론화위원회 논의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건설 찬반을 포함해 지역, 연령, 성별, 속의형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0~35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추

출한다.

이들 배심원단에 2주 동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1박 2일 동안의 합숙을 통해 찬반 양측의 발제와 토론, 전체 질의응답 등을 거쳐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한 관리 등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오는 11월 10일까지 권고 형태로 광주시장에게 제출한다.

최영태 위원장은 “의제 설정부터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시민의 뜻을 담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회가 17일 오후 광주시청 협업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공론화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레지오넬라균 지난해 보다 2배 검출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 냉각탑수 관리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검출되면서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병원, 백화점 등의 냉각탑수 소독 및 청소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17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광주시 건강정책과, 5개 자치구 보건소 등과 협조해 광주지역 대형건물 냉각탑수를 비롯해 병원, 사우나 및 숙박시설 등 시민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 시설, 분수대 등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8월까지 총 595건을 검사해 96건(16.1%)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월 102건 중 13건(12.7%), 7월 265건 중 30건(11.3%), 8월 228건 중 53건(23.2%)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5건 중 29건 검출(5.7%)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레지오넬라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장소는 시민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목욕탕 육조 온수였으며, 대형건물은 냉각탑수로 분석됐다. 육조 온수의 경우 전체 34건 중 15건(44.1%)이, 냉각탑수에서는 전체 87건 중 32건(36.8%)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냉각탑 및 목욕탕 등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

소와 소독 등 철저한 관리를 권고했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대형건물 냉각탑수 및 목욕탕 온수시설 샤워기 등의 오염된 물에 있던 레지오넬라균이 비발 형태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면역 저하자나 흡연자 등 고위험군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아직까지 사람 간 전파 보고 사례는 없다.

임상증상은 역학적 특징에 따라 독감형과 폐렴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독감형은 감기와 비슷해 증상이 경미한 반면 폐렴형은 고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15~30%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광주도시공사 사장 노경수 교수 내정

다음달 4일 인사청문회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인 노경수(56·사진)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6명의 응모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복수 추천된 노 교수와 박 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장 가운데 노 교수가 최종

후보로 지명됐다.

노 교수는 서울대 공학박사(도시계획 전공), 전남도 도시계획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평가위원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고도(경주·부여·공주) 보존위원, 광주시 도시재생위원,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시는 신원조회에 이어 청문서류



준비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7일께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강천산 계곡

강천산 병풍폭포

메타세쿼이아길

장군목

제33회 순창장류축제

2018. 10. 19(토) ~ 21(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인숙마을